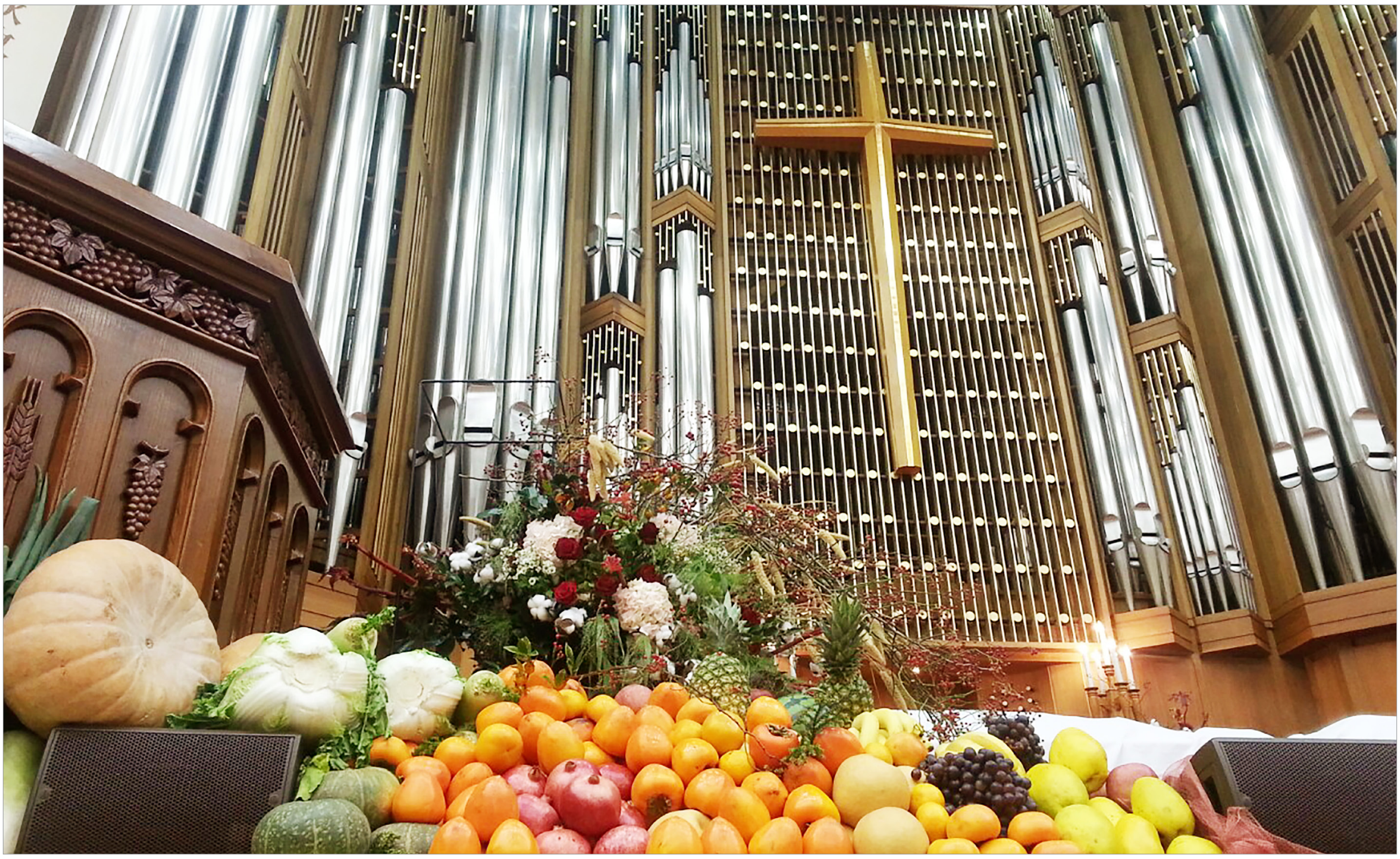
광림교회
KWANGLIM CHURCH
등록번호 다-467 / 발행인 김정석
발행처 광림교회 서울 강남구
논현로 175길 49 TEL 2056-5600
www.klmc.net

# 광림 뉴스레터
KWANGLIM NEWSLETTER

광림뉴스레터 800호 발행기념



##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미래를 여는 풍요로운 길

### 지난 1년간 많은 기도 응답받아 큰 선교사업들 대부분 이루어져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다. 원망과 불평보다는 내게 베푸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한다는 고백이 나오는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하나님 사람들의 삶이다."**

추수감사절(Thanksgiving Day)은 한해의 수확을 끝내고 지금까지 베풀어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는 기독교의 절기이다. 미국으로 이주한 청교도들이 1621년 첫 수확에 대한 기쁨과 감사에 대한 표시로 축제를 벌인 것에서 유래하였다. 한국교회에서는 1904년 처음으로 추수감사절이 시작되었고, 1921년 11월 셋째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정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광림교회는 지난 11월 17일 주일 모든 예배를 추수감사예배로 드렸다. 김정석 담임목사는 이날 설교에서 "우리 입에서 '감사'라는 말이 많이 나올수록 행복한 사람이고, 성공한 인생이며, 성숙한 인격의 소유자라 할 것이다.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다. 원망과 불평보다는 내게 베푸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한다는 고백이 나오는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하나님 사람들의 삶이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18절을 통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했듯이 감사하는 생활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는 삶이 비로소 새로운 미래를 여는 풍요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격하며 내게 있는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행복한 삶이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정석 담임목사는 "우리 광림교회가 1월부터 기도로 준비하고 추진해 온 모든 일들이 대부분 이루어졌거나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이 많은 일을 이루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고 전했다.

금년에 추진했던 사업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광림수도원 샬롬하우스와 대성전 리모델링 공사의 완공을 앞두고 있으며, 둘째, 동탄 지교회의 설계를 완료하였고, 셋째, 본당 조명을 LED 등으로 교체하였다. 넷째, 남녀 화장실을 확장이전 하였으며, 다섯째, 몽골 어르비트 선교센터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선교센터를 건립하여 봉헌을 앞두고 있다. 여섯째, 광림남교회의 낡은 버스를 신규 교체하고, 일곱째, 광림남교회 성전지붕 공사를 완공하였다.

추수감사예배 중에는 성찬식을 거행했다. 모든 성도들은 지난 1년간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렸고, 우리를 위해 대속하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예식을 경건하게 참여했다. 추수감사절에 맞춰 강단을 장식했던 각종 과일과 야채들은 포장하여 소년소녀가장들과 미혼모들에게 나누어주어 어려운 이웃들과 추수의 기쁨을 함께 나누었다.

이날 저녁예배는 여선교회성가대가 주관하는 추수감사주일 음악예배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올려 드렸다. 고성진 권사의 지휘로 100여 명의 성가대원들이 'Together' '사랑의 나눔' '축복하노라' 등 9곡과 솔리스트들로 구성된 중창단과 9명의 앙상블 팀원들이 함께한 찬양은 성전을 은혜 풍성한 시간으로 만들었고, 성도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여선교회성가대 위원장인 최영민 권사는 "지난 4개월 동안 수요일마다 성전에 나와 찬양 연습으로 준비하여 추수감사주일 음악예배에서 아름답고 은혜로운 작품을 만들어주신 모든 임원과 대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지휘자님과 대원들의 열정으로 거룩한 성전에서 멋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어 가슴이 뛸 만큼 기쁩니다"라고 말했다. 여선교회성가대는 1993년 창단되어 현재까지 이르며, 매주 수요예배에서 찬양으로 헌신하고 있고, 교회의 중요한 행사와 국내의 선교지에서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참여하여 찬양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백명순 기자 bmsoon@naver.com

2 광림의 강단 한 어버이의 부르짖음
3 광림 스토리 서울남연회 장로연수교육
4 총력전도 특집 말씀의 샘, 트리니티 성서대학원
6 믿음의 현장 속회 통해 삶의 기쁨이 두배로
7 특집 국제광림비전랜드 부활의 동산
8 복음, 문화와 만나다 2019 선교구 성가제

# 한 어버이의 부르짖음

##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사무엘하 18:28~33)

오늘 본문 말씀은 한 아버지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한 나라의 왕이자,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입니다. 다윗은 원래 목동이었지만, 사울 왕에게 발탁되어 장군이 되었고, 목숨을 걸고 충성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사울 왕의 시기를 받아 광야로 쫓겨나고 맙니다. 그곳에서 온갖 고생을 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사울 왕이 죽은 후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배신하여 반란을 일으킵니다. 인물도 출중하고 똑똑하고 잘난 아들이라 가만히 있어도 왕이 될 인물이었지만, 사람

>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들의 꾐에 빠져 아버지를 배반하고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 때문에 다윗은 맨발로 야밤에 감람산으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러다 다윗의 진영과 압살롬의 진영이 전쟁을 하고, 마침내 다윗의 진영이 승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다윗은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29절)라고 계속 오는 전령에게 아들의 생사를 묻습니다. 사람들은 다 압살롬을 원수로 보았지만, 아버지인 다윗은 여전히 자신의 아들로 여긴 것입니다. 결국 압살롬은 요압에 의해 죽습니다. 구스 사람이 다윗에게 나아와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자, 다윗은 목 놓아 웁니다. 모든 사람이 못된 아들, 패륜아라고 해도 다윗은 그 아들을 사랑한 것입니다.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어버이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어버이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 첫째, 어버이의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반란을 일으켜 아버지의 왕좌를 빼앗으려했던 압살롬이 얼마나 패역한 아들인지 알 수 있습니다. 죽어 마땅한 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다윗은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사무엘하 18:28~33

28.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29.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30.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서 있더라 31.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뢸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32.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33.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33절)라고 애통합니다. 여기서 그는 "내 아들"이는 말을 무려 5번이나 외칩니다. 아무리 잘못한 아들이라 할지라도 사랑했던 것입니다.

얼마 전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한 어머니가 부엌에서 일하다 하반신에 심한 화상을 입고 입원했습니다. 피부가 다 벗겨지고, 말초신경이 드러나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괴로워하는 어머니를 지켜보던 아들은 "엄마, 얼마나 아프세요?"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어머니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얘야, 천 번 죽고 천 번 사는 것 같구나. 이 세상에 이렇게 심한 고통이 있는지 몰랐다." 이 말을 듣고 아들은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아들의 손을 잡더니 "나는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다. 너희 아픔을 다 내게 주십사 하고. 너희 고통은 다 내가 짊어지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며칠 뒤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어버이의 절대적인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엿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받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래서 아들에게도 자신이 받은 그 사랑을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 둘째, 어버이의 사랑은 책임지는 사랑입니다.

사무엘하 15장 이하를 보면, 다윗은 도망치면서 압살롬의 반란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왔다." 그는 이 일을 신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는 일찍이 밧세바라는 여인을 취하여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너희 집에 칼이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말을 가슴 깊이 새겨들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의 형제들이 다툼을 하고 죽는 일이 발생했고, 또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피난길을 떠날 때도 '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윗의 편에는 장군들이 많았습니다. 얼마든지 압살롬을 섬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보좌를 버리고 도망친 것은 압살롬의 반역을 자신의 문제로 여기고 책임지려고 한 것입니다.

사회학자들에 의하면, 사람의 인격이 형성되는데는 3가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신앙, 정의, 그리고 인내심입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어디서 배웁니까? 바로 부모에게서 배웁니다. 그래서 자녀가 잘못을 저지르면 부모는 참고 인내합니다. 이것이 부모의 책임감입니다. 하나님 역시 우리를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며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십니다. 자녀를 책임지려는 부모처럼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께 오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 셋째, 어버이의 사랑은 적극적인 사랑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진영과 전쟁을 치르는 전란 속에서 오는 전령마다 "나를 위하여 소년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접하라"고 말합니다. 배신자 압살롬을 소년이라 부르며 너그럽게 대하려고 합니다. 압살롬이 죽었을 때에도 그의 이름을 다섯 번이나 부르며 울부짖습니다. 아들이 잘못을 회개하고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이 있었기에 그렇게 애타게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돌아오기만 하면,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엡 6:1~3)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모에게 순종하고 주시는 은혜에 늘 감사하며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광림교회 담임목사 김 정 석**
kwanglim-sp@hanmail.net

김정석 담임목사의 설교 CD와 트리니티 성서대학원 강의 CD는 광림교회 목회연구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전화 I 02-2056-5730

# 하나님의 사명 이루는 훌륭한 리더가 돼라

### <2019 서울남연회 장로연수교육 및 신천장로 OT>에서 김정석 담임목사 주제강연 해

2019년 장로회 서울남연회 주관, 서울남연회 소속 장로들을 대상으로 하는 <장로연수교육 및 신천장로 OT>가 11월 9일(토)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광림사회봉사관(강남구 신사동) 컨벤션홀에서 있었다. 먼저 신천장로 OT가 열렸고, 이어 개회예배를 드렸으며, 오전 11시부터 김정석 담임목사의 주제강연이 있었다. 김정석 담임목사는 빌립보서 4장 9절 "너희는 내게서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는 말씀을 가지고 평신도 리더로서 서울남연회 장로가 가져야 할 리더십에 대해 전했다. 김정석 담임목사는 "어떤 조직이든 리더가 중요하다. 리더에게는 훌륭한 리더십이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리더십이란 무엇인가? 훌륭한 리더십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고 리더로서 다른 사람을 이끌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리더의 핵심가치는 무엇인가? 우리는 훌륭한 리더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주제강연을 들은 서울남연회 260명의 장로들은 예수님처럼 분명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인생을 살기로 다짐하고, 어떤 세상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장로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로 다짐했다.

**박영준 장로(뉴스레터위원장)**

# 베트남 광림선교센터, 최초로 외국인 독립종교집회 허가받아

베트남 광림선교센터(담당 이병무 목사)는 지난 9월, 베트남 선교 역사상 최초로 <외국인의 독립적인 종교집회>를 승인받았고, 10월 30일 호치민 종교성(Ban Ton Giao)을 통해서 공식 허가증을 발부받았다.

베트남은 사회주의국가로, 외국인의 종교집회에 대해 매우 까다롭고 철저한 법률 적용을 하고 있다. 베트남 종교법은 비자와 거주, 부동산, 집회시간 등 세세한 규제를 적용하고, 필수적으로 베트남 현지교회에 소속되어야 하기에 그동안 한인교회 및 외국인 교회들 모두 고전을 하는 상황이었다.

호치민에만 약 40개의 한인교회가 있는데, 수년간 막대한 선교비를 쏟아 붓고도 허가를 받지 못한 교회들이 대다수이고, 허가를 받은 교회도 10개가 안 될 정도로 어려운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베트남 광림선교센터는 2018년 개정된 종교법을 바탕으로, 현지교회 소속이 아닌 외국인교회 독립적인 종교집회를 신청하여 승인받았다. 이는 베트남 선교 역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건이다. 특별히 광림선교센터의 집회 허가 승인은 감리교회 선교의 새로운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에서 감리교회는 현재 미허가 상태다. 내부 문제로 통합이 어렵고 타 교단과의 무리한 통합시도로 인해 정부에서 교단승인을 해주지 않고 있다.

이런 때에 베트남 광림선교센터가 감리교회로 집회허가를 받았다는 것은 앞으로 베트남에서 감리교회의 교단승인을 위한 중요한 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베트남 감리교회의 바른 통합을 위해서도 중심 역할을 감당할 것이다.

베트남 정부와 호치민 시 당국에 따르면 베트남 광림선교센터는 외국인교회 사례 중 가장 빠른 성장을 하고 있으며, 정부와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교회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광림선교센터가 베트남에서 건강한 선교모델이 되기를 기대한다는 공안부의 축하메시지도 있었다. 하나님께서 광림교회를 통해 주신 세계선교의 비전이 주님의 은혜로 베트남에서 중요한 결실로 나타나고 있다.

**변영혜 기자** yhbyun1010@hanmail.net

# 안산 <만나복지원> 찾아 사랑나눔행사 가져

광림교회 남선교회(총회장 박기연 장로)는 11월 17일 주일 오후 안산에 소재한 만나복지원(원장 공성혜)을 방문하여 사랑나눔 행사를 가졌다. 남선교회에서는 쌀 화환으로 얻은 수익금을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시설을 선별하여 찾아가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데, 만나복지원은 중증장애인 27명을 6명의 봉사자가 24시간 365일 함께 돌보며 생활하고 있는 곳이다. 만나복지원은 공성혜 원장의 어머니가 시작했고, 공 원장은 어머니를 잠시 돕자고 학창시절 나섰던 것이 계기가 되어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현재까지 10년째 운영하고 있다. 어머니의 설립 목적대로 영혼 구원에 목적을 두고 식구들을 섬기고 있다는 공 원장은, 지난해 방문 때 기도제목 중 하나가 법인 설립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기도제목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 이유는 법인인가를 받으면 신앙교육, 예배 등 종교 활동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어려워도 믿음 안에서 식구들의 영혼 구원을 위한 섬김을 계속하겠다고 결단했다고 한다.

가녀린 외모의 4살배기 아기엄마인 공 원장은, 어머님 10주기를 맞는 내년 더 좋은 보금자리를 위한 기도를 부탁하였고, 함께 참여한 남선교회 회원들은 내면의 증보기도의 결단과 깊은 영적 도전을 받았다.

특별히 이날은 추수감사절을 맞아 초등부(위원장 권후원 장로) 어린이들의 손길을 통해 모은 쌀 5박스를 만나복지원 원생들에게 전달하여 더욱 풍성하게 따뜻함을 전할 수 있었다. 결혼식 때 '화환 대신 사랑의 쌀'에 동참해 주는 성도들의 헌신과 시설 방문 때마다 정성을 다해 주는 목회자 및 연합회장, 교구장들의 수고는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는 기반이 되었다. 이에 모든 봉사가 사업본부 위원들에게는 큰 힘과 보람이 되었고, 남선교회 모든 임원들은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찬양했다.

**이득섭 기자** 7sublee@naver.com

## 포토 뉴스

**광림교회 창립66주년 기념정기전**

11월 3일~24일(주일), 장천갤러리에서 광림미술인선교회 교회 창립66주년 기념정기전이 열렸다.

**가을학기 트리니티 성서대학원 종강**

11월 19일(화), 2019년 가을학기 트리니티 성서대학원 종강시험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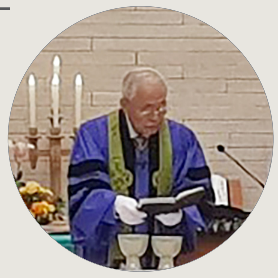
**무료영화 상영 <그 사람 그 사랑 그 세상>**

11월 24일 주일 장천홀에서 무료영화 <그 사람 그 사랑 그 세상>이 상영된다.

## 담임목사 동정

| | |
|---|---|
| 11/9 | 서울남연회 장로연수교육 |
| 11/10 | 수능기도회 권면의 말씀 |
| 11/17 | 추수감사주일예배 성찬식 |
| 11/17 | 추수감사주일 음악예배 |
| 11/19 | 트리니티 성서대학원 종강 |

## 감독 동정



| | |
|---|---|
| 11/10 | 광림서교회 주일예배 |
| 11/17 | 광림북교회 추수감사주일예배 |

광림교회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www.klmc.net

## 내 인생의 말씀

###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한 영혼

청년부에 올라오고 나서 주일 아침에 게을러지는 저의 모습을 보신 어머니의 권유로 영아부 교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교사를 시작할 때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많이 당황했었던 게 기억납니다. 하지만 영아부 선생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빨리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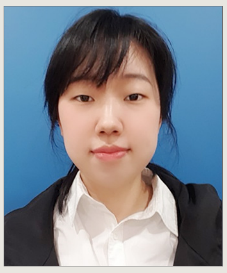
그러던 어느 날, 저희 교회에 처음 온 한 아이를 맡게 되었습니다. 아직 많이 어려서 두달 동안 엄마가 보고 싶다며 매주 울면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제 품에 안기면 제가 자기 선생님이라는 걸 알면서 울음을 그치고 옹알이를 하며 찬양 율동을 따라했습니다. 또 이름을 부르면 쫑쫑쫑 저를 따라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부르시면 따라가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엄마가 "이따가 보자"고 인사해도 울지 않고, 헤어지면 잘 노는 것이 신기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무엇보다도 예배 시간에 자리에 앉아 전도사님을 빤히 쳐다보며 말씀을 듣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사랑스럽습니다. 그렇게 아이가 영아부 예배 안에서 자라니 어린이집도 잘 적응한 것 같다며 감사해 하는 부모님 말씀에 제가 더 기뻤습니다.

매주 하루하루가 다르게 키가 자라고 걷고 말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린 한 영혼을 귀중히 여기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한 교사이지만, 영아부에 믿고 맡겨주시는 부모님들께 감사드리고 매 주일이 기다려질 만큼 제게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마태복음 19:13~15)



이유선 성도 (영아부 교사)

生生 생생 속회 (42회)

25교구 46속회

# 기도하는 아내, 기도하는 어머니의 사명

서초구 잠원동의 25교구 46속은 다른 속에 비해 비교적 젊은 마리아들로 이루어져 있다. 자녀들이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있는 학부모들이라 아이들을 위해 특히 더 열심히 기도한다.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바로 서는 자녀가 되길 소망하고 있다.

**기억에 남는 간증 :** 오성은 속장은 "1년 전만 해도 지구장님과 함께 연합으로 속회를 드리다가 속원들이 늘어남에 따라 이제는 우리 속만 따로 예배를 드린다. 자칫 젊은 사람들만 모이는 예배라 혹시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모임이 되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더 뜨거워지고 자신의 간증을 전하는 풍성한 속회가 되었다. 속회를 드리지 않던 성도들도 잘 참석하고 새신자도 속회에 나와 은혜를 받을 때 큰 감사를 느낀다"라고 말했다.

**은혜받았을 때 :** 속원들은 거의 매년 수능기도회에 모두 참석한다. 올해에도 장윤경 성도와 황지연 성도의 자녀가 수능을 치렀다. 다 함께 모여 서로의 자녀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한 식구가 된 속원들을 볼 때 많은 은혜를 받는다.

**기도하는 아내, 기도하는 어머니 :** 아직 믿지 않거나 혹은 주일성수를 하지 않는 남편과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속회의 공통 기도제목이다. 기도하는 아내, 기도하는 어머니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합심기도를 한다.

**속회를 중요시하는 이유 :** 주일예배를 통해서도 많은 은혜를 받지만, 속회를 통해 내가 만난 하나님을 서로 나눈다. 세상 속에서 상처받거나 힘들 때, 말씀 속에서 교제 속에서 위로받고 다시 한 번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준다.

**매주 수요일은 속회예배 드리는 날 :** 매주 수요일 속회예배로 정하고 그 날을 꼭 지킨다. 하지만 불가피한 일이 있을 때에는 다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날로 다시 정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일이 있더라도 잠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른 오전(아이들이 등교하자마자)에 드리고 한다. 또 매주 각자 좋아하는 성경구절을 암송한다. 머릿속에만 맴돌던 성경구절을 속원들 앞에서 암송하니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생각에 은혜도 받고 기도도 풍성해짐을 느낀다.

**나에게 속회는 어떤 의미 :** 유혜란 성도는 "기쁘고 즐거운 일 혹은 힘들고 낙심될 때 나누며 서로 위안도 되고 하나님 안에서 자매 같은 모습으로 성숙한 신앙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다"라고 고백했다.

**속회예배를 잘드리는 이유는? :** 장윤경 성도는 "지구장이신 홍명화 권사님이 몇 년간 탄탄한 예배의 기초를 다져주셨고, 이후 오성은 집사님의 헌신과 섬김이 세워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믿음의 어머니들의 기도가 쌓인것 같다"라고 전했다.

**속회예배에서 지켜야 할 것은? :** 황지연 성도는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말씀과 믿음 속에서 속원과 소통하며 속회에서 만큼은 서로 상처주는 언행을 삼가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서로 사랑하고 아끼며 힘들 때 슬퍼해줄 수 있는 속회를 하나님이 예쁘게 보시고 기뻐하실 줄 믿는다"라고 했다.

김옥이 기자 beauty0303@gmail.com

우리교회 이래서 좋아요

# 말씀의 샘 〈트리니티 성서대학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시간

트리니티 성서대학원은 광림교회를 대표하는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다. 성도들은 그 말씀의 샘에서 생명수를 마시며 성경의 세 가지 개념(사실, 의미, 적용)을 배운다. 성경 66권에 나타난 사실 속 인물과 사건을 상세히 알아보고, 그 사실들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발견한다. 적용은 그 사실과 의미가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각자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지를 배우는 것이다.

트리니티 성서대학원은 1983년 김선도 감독님의 '구약 총론'으로부터 시작됐다. 성도들의 양적 팽창과 더불어 영적 부흥과 성장이 절실히 필요함에 의해서다. 1984년 '신학 총론'에 이어 1985년부터 모세오경, 역사서 순으로 37년간 계속되고 있다. 매년 봄, 가을 학기로 나눠 현재 74차 성경 공부를 마쳤다. 성도들은 두 번의 신/구약 전체 공부를 했고, 다시 구약을 공부 중이다.

트리니티는 김정석 담임목사의 직접 강의로 매 학기 5,000여 명 이상 등록해 12주간 동안 화요일 오전 11시, 오후 7시 30분에 열린다. 일반반 강의는 본당에서, 통신반은 강의된 내용을 인터넷과 CD 등으로 듣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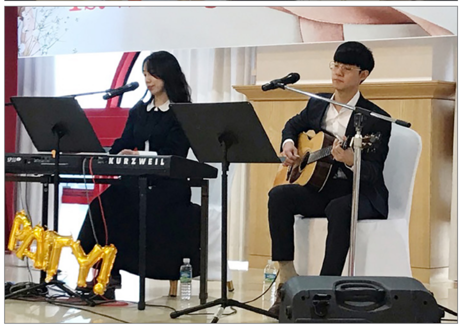
철저한 학사 규정으로 출석 70%, 과제물 30%를 반영해 이수자를 선정한다. 봄/가을 학기가 끝나면 종합시험을 본 후 수료증을 받게 된다. 또 매주 성경 요절 암송을 통해 말씀의 은혜를 더하며, 여선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성경)도 받는다.

'그의 길을 따라 가라 Walk in his ways'(왕상 2:1-4)는 2019년 가을학기 트리니티 주제다. 열왕기상/하 말씀으로 9월 3일~11월 19일까지 매주 화요일 광림교회 본당과 지교회(광림남교회, 광림서교회, 광림북교회)에서 열렸다. 광림교회 성도들은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었다. 트리니티는 각 구절 말씀을 통해 의미와 적용으로 성도들에게 믿음의 깊이를 더하며, 혼탁한 세상에서 주님을 따라 바른 길을 가는 삶의 나침반 역할을 하고 있다. 트리니티 위원장 정병무 장로는 "트리니티 성서대학원을 통해 말씀의 기쁨을 체험한 성도는 은혜 안에서 변화된 나를 보게 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더할 수 있다"며 한국교회 대표적 성경 공부인 트리니티 성서대학원에 적극적인 참여를 권했다.

이상희 기자 shlh616@naver.com

# 사랑 다시 서약하며 진심을 주고받은 신혼부부들

### 〈1st Wedding Anniversary〉 11월 10일(주일) 광림사회봉사관 4층에서 열려




사랑하는 남녀가 만나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예식장, 스튜디오, 드레스 등 많은 것을 알아보고 준비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예식 준비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실제 결혼생활을 위한 준비다. 특히 결혼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영혼을 가꾸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바쁜 현대인들은 영혼을 가꾸고 온전히 성장하는데 관심이 없다. 급한 일에 쫓기다 보니, 정작 중요한 일은 놓치며 산다. 사랑하는 사람과 잘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영혼을 가꾸어야 한다.

청장년부는 주일에 김정석 담임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과 회개의 시간을 가진 후 모임을 갖는다. 특별히 지난 11월 10일(주일)에는 결혼 1주년 기념파티인 〈1st Wedding Anniversary〉를 광림사회봉사관 4층 컨벤션 B홀에서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김정석 담임목사님의 주례로 결혼한 신혼부부들이 많이 참석했다.

젊은 부부들의 신앙생활을 격려하는 취지에서 시작된 이 행사는 올해로 5회째를 맞는다. 특별히 이번 행사의 강사로 모신 한정희 사모님은 결혼생활의 선배이자 신앙의 멘토로서 친근하고 편안하게 지혜를 나누어 주셨다. 올해 청장년 회장으로 섬긴 신동준 집사는 사모님께 "목사님께서 결혼기념일을 어떻게 챙기시는지?"라는 기습질문을 드렸다. 사모님께서는 담임목사님께서는 조용히 '꽃다발'을 갖다 주신다고 하여 모인 청장년 부부들의 탄성을 자아냈다.

이외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과 더불어 부부가 서로를 향해 사랑을 표현하는 순서가 있었다. 청장년부 김대영 목사의 진행으로 부부가 서로에게 편지를 쓰고, 남편은 아내에게 꽃반지를, 아내는 남편에게 장미꽃을 주는 '리프로포즈' 시간을 가졌다. 이후 싱어송라이터 하이디와 기타리스트 이병우의 따뜻한 가사와 노래로 축복 속에 순서를 마쳤다. 청장년부 위원장 신범식 권사는 "이번 〈1st Wedding Anniversary〉 행사는 예년보다 화려하진 않았지만, 부부가 진심을 주고 받는 진실한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청장년부는 복음으로 세상을 화평케 하는 부부로 부름받은 공동체이다.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셨듯 배우자를 사랑하고 섬기면서 세상의 선한 영향력을 발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다.

**박상익 전도사(청장년부)**

# 지금은 1인 미디어시대, 유튜브로 복음 전할 수 있어

### 〈제1회 CTS 방송아카데미〉 11월 7일(목)~12월 5일(목), 시온성전에서

**영상 제작 기법 습득해 방송분야 봉사자로**

'스마트폰을 이용한 유튜브 영상 제작법'을 배울 수 있는 CTS방송아카데미가 진행 중이다. 교육 일정은 11월 7일(목)부터 12월 5일(목)까지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총 5회차 교육)에 광림교회 본당 시온성전에서 진행된다. 수강료는 2만원이고 준비물은 스마트폰과 필기도구이다.

교육 취지는 광림교회 성도들이 영상 제작 기법을 습득하여 향후 방송분야에서 봉사자로 세우기 위함이다. 특히 미디어 사역자를 양성하여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촬영, 편집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하고 기초적인 영상을 제작하여 최근 인기있는 유튜브에서 미디어 선교 영상을 올려 채널 만들기를 완성하도록 할 예정이다. 교육 내용은 1회차 영상 기획, 2회차 촬영 기초, 3회와 4회차 영상 편집(편집툴 : KINEMASTER), 5회차 유튜브에 내 채널 만들기이다. 강사는 CTS 기독교TV 임철수 선교국장 외 1명이며, 교육 인원은 총 20명이다.

광림방송(KLB) 유상균 PD는 "지금은 1인 미디어시대이다. 혼자서도 방송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 우리 광림교회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지성전과 선교지, 각 부서마다 한 명씩 봉사자를 세워 유튜브에서 '내가 만드는 복음 소식' 채널을 만들고 광림방송과 연계해 미디어선교를 확장하려고 한다"라고 말했다.

문의 : 유상균 PD 010-3387-0731

**김혜경 기자** kyung5374@hanmail.net

## 신앙 간증

### 아픔도 슬픔도 다 치유하시는 하나님

지난 11월 15~16일, 1박 2일 동안 광림교회 사회사업위원회와 청년부가 함께 기획하여 전국의 7개 법원으로부터 소년 재판을 받아 처분받은 아동, 청소년들을 보호하며 교육하는 '로뎀청소년학교' 학생들의 수련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저에게 로뎀 청소년 수련회를 허락하시고 준비하게 하셨을 때, 하나님의 큰 뜻이 있으셨음을 느꼈고, 기획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19장과 디모데후서 1장 말씀을 주시며 지쳐있는 우리 삶에 분명한 회복과 공동체의 하나 됨을 알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부르신 소명과 사명의 자리를 확증시키실 것이라는 마음을 강하게 주셨습니다.

제천에 답사를 다녀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다 하나님께 맡겨 드립니다. 팀원들도 보내주시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그냥 다 알려주세요. 전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팀원들도 넘치게 채워주셨고, 말씀을 통해 아이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지도 인도해주셨습니다. 수련회를 진행하면서도 비가 많이 와서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에 놓여 있을 땐,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고 인도하심을 간구하였고, 그 때마다 도와주시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하나님 나라와 같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떠한 모습으로 지으셨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실까?' 아이들과 소모임을 하며 인생그래프를 그려보고 나누었는데, 몇 시간 밖에 보지 않은 선생님들에게 본인이 어떤 죄를 지어 여기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어떤 가정사가 있었는지 시시콜콜 이야기해주는 아이들의 순수한 모습에, 또 부모에게 버려지고 방치되었던 아이들의 모습에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아이들에게 나의 이야기를 전하며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선 우리 삶에 쓸모없는 순간은 결코 없음을,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도 능력이 되게 하실 것을 이야기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을 허락하셨고, 우리의 부르심을 확증하셨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부어주셨던 만나와도 같은 은혜를 삶에 녹여내고 그 힘으로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김태연 성도(청년부)**

## 청년 부흥의 불씨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 목회현장 -

김주송 목사(청년부)

지난주 토요일부터, 4주 동안 진행되는 청년부 '예비속장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교육 과정을 수료한 청년들은 2020년 1월부터, 교회 안의 작은 교회인 청년부 속회를 섬기는 속장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2주 전 주일 5부예배 때, 예수님을 따르는 '500명 부활의 증인'에서(고전 15:6), 이제는 '70명의 제자'(눅 10:1)로 헌신하기를 원하는 청년들은 '예비속장교육'에 신청할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청년부 담당 전도사님들에게 신청자를 파악해보니, 1명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신청서는 제출하지 않았지만 기도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고 해서 새벽기도회 때마다 마태복음 9장 37~38절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감사하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신청서가 하나, 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속장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와 재정과 시간으로 속원들을 섬겨야 합니다. 헌신하는 자리이기에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은 분명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청년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결국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청년들이(16명) 지원을 했습니다. '예비속장교육'을 신청한 청년들의 지원 사유와 추천서를 자세히 읽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 청년은 신청서에 이런 고백을 썼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청년 속장님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고 기도에 빚을 졌습니다. 이제는 저도 베푸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속장님처럼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싶습니다."
앞으로 4주간의 교육이 종료가 되면, 예비 속장들은 3가지 훈련을 지속적으로 받게 됩니다. 기도 훈련은 '쉐키나 워십'(매주 목요일)을 통해서, 말씀 훈련은 '비전 트리니티'(매주 토요일)를 통해서, 속장으로서의 훈련은 '속장인도자교육'(매주 토요일)을 통해서 받습니다. 16명의 훈련생들이 광림교회 청년부를 대표하는 예수님의 '70인의 제자'로 세워져서, 주님께서 부탁하신 지상명령인 '영혼구원'과 '제자 삼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청년 부흥의 불씨는 살아있습니다."

# 속회 통해 삶의 기쁨이 두배로

- 광림남교회 -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구나.'**
광림남교회는 10월 30일 속장, 예비속장세미나를 통해 '속회의 역사, 속장의 역할, 속회원 간증과 Q&A 속회 인도법'에 대한 재교육을 실시하였고, 11월 1일(금) '속장 은혜의 밤'과 11월 15일 '속장 야유회'를 통해 교회의 뿌리인 속회를 세우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오늘 기사는 속장세미나 중 한 속원의 간증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2교구 강구희 성도입니다. 저는 올해 2월에 용인으로 이사를 오면서 광림남교회로 오게 되었어요. 본당에 출석할 때는 조용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살짝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사 후, 속회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속장님과 속원에게서 처음부터 너무 좋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구나' 하는 걸 느꼈고요. 정말 하나님과 밀착되어 있는 곳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껏 제 인생은 예수님보다 앞 선 수많은 우선순위들이 많았습니다. 가정, 사업, 남편, 자녀들 그리고 내 삶까지…. 그런데 속장님의 도움으로, 속회에서의 영적 교제를 통해 십계명의 제 1계명을 새롭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너와 나 사이에 아무 것도 두지 말라." 이 말씀이 제 삶을 파고드는 순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결심이 섰습니다.
4명의 아이들을 키우며 경제적인 부담이 컸는데, 돈이 우상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십일조를 결심했습니다.
매일 영의 양식을 먹기 위한 방법으로 성경 녹음을 하고 있고요. 가정예배를 위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간절한 기도 제목이었던 남편의 전도가 이번 총력전도주일에 이루어졌고, 창립기념주일에도 아파트에서 만난 친구를 전도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내 힘빼기"를 한 것뿐인데, 하나님은 마음에 참된 평안과 전도의 기쁨을 맛보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올 한해를 돌아보면서, 저에게 속회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자리였고, 훈련의 시작이었으며,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강구희 성도(광림남교회)**

# 힘들 때, 성전에서 기도하며 하나님 만나

저는 지난 40년간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선하신 부모님 아래에서 구김 없이 자란 저는, 바르고 착하게 살기만하면 충분하다는 생각으로 새벽 6시부터 밤 12시까지 일을 하였고, 10년간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요리봉사도 했습니다.
그러던 저에게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 시련은 28살 어느 여름의 일이었습니다. 부모님께서 동네 분들과 계곡에 놀러가셨다가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사고로 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 찾아온 우울증과 무기력을 열정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일환으로 아토피가 있던 경험을 비추어 건강에 좋은 재료로 디저트를 만들어 팔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청년창업 대출을 받아 5평 남짓 되는 작은 가게를 오픈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투자를 받고 직원들을 고용하여 5년 뒤에 원금을 상환할 수 있었고, 조금 더 넓은 곳으로 이전을 계획하다 광림교회 근처에 매장을 오픈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직원들과 크고 작은 갈등이 있었고, 새벽부터 저녁 12시까지 일하면서 찾아온 체력적인 문제, 경영상의 어려움이 저를 압박하였습니다. 빚은 늘어가고 사업은 막막해져갔습니다. 결국 가게를 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놓은 가게조차 잘 나가지 않아 더는 갈 곳도 없고 희망도 사라진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광림교회 한 권사님께서 광림뉴스레터를 어김없이 제 가게에 놓고 가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싫었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찾아와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며 어느새 감사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하루 전도사님께서 저를 위해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제 마음을 어루만지는 그 기도에 감격하였습니다. 또 광림교회 벧엘성전은 언제나 열려있다고 알려주셔서 마음이 답답할 때마다 벧엘성전으로 향하였습니다.
그 날 저는 캄캄한 벧엘성전에 홀로 앉아 불켜진 십자가를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보고 계시다면 저 좀 살려주세요.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교회 열심히 다닐게요. 봉사 하라시면 봉사도 할게요. 그러니 가게가 빨리 나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저는 어머니에게 광림교회에서 기도하고 있음을 알려드렸습니다.
불교신자인 어머니는 크게 역정을 내시며 종교는 함부로 바꾸는 게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매일 엄마와의 전쟁이 계속되었습니다. 엄마와 보이지 않는 갈등을 치르고 있을 때, 목사님과 전도사님이 방문하셔서 기도해주셨고, 뮤지컬 초청권과 체육대회 초대권을 주셨습니다. 엄마는 예상과 달리 가겠다고 하셨고, 그것으로 인해 우리 모녀는 함께 광림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종교가 마음의 위로나 위안을 받는 곳이고, 내가 착하게만 살면 언젠가는 복을 받는 것이 세상 이치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관하시며,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분임을 지금은 뼛속까지 느끼고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엄마와 저는 매일 작업실에 도착하면 기도와 성경을 한 장씩 읽고 하루 일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말 어렵고 힘든 이들에게 나눔을 실천하는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려는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시 23:1) "두려워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사 41:10)
여러분들도 이 두 구절이 큰 도움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연 성도(12교구)**

# 로뎀청소년학교 <함께 더불어> 비전캠프로 성장하고 회복

## 광림교회 사회사업위원회, 청년부와 손잡고 '보호 청소년들'에게 따뜻한 사랑 전해

**"로뎀청소년학교는 상처 입은 영혼들이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기관입니다. 귀한 사랑을 나눠주신 광림교회 사회사업위원회와 청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광림교회 사회사업위원회(위원장 신동우 장로)는 청년부와 손잡고 지난 11월 15일(금)~16일(토) 1박 2일간 국제광림비전랜드에서 로뎀청소년학교 학생들을 위한 〈함께 더불어〉 비전캠프를 열었다. 로뎀청소년학교는 기독교 사랑을 바탕으로 가정과 학교에 적응하지 못해 잘못을 저지르거나 상처받은 14~18세 청소년들에게 인성과 사회성을 길러주고 자존감을 높여주는 법정 보호기관이다.

캠프 기간 동안 청소년들은 친형, 친누나 같은 광림교회 청년들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멘토링을 통해 심령을 회복하고, 넓은 잔디구장에서 축구를 하면서 영육 간에 쉼을 얻었다. 사회사업위원회는 사랑이 가득 담긴 후원으로 식사와 간식, 각종 필요한 비품 등을 제공했고, 축구공 5개를 로뎀학생들에게 선물로 주었다. 사회사업위원회 김 경 집사는 장갑과 핫팩, 간식이 담긴 정성어린 선물세트를 각 학생들에게 전달했다. 청소년들은 평소 갈고 닦은 실력으로 바이올린, 첼로 연주와 합창을 선사했다. 'You raise me up' 등 다수의 곡을 아름다운 화음으로 연주해 큰 박수를 받았다.

광림교회 청년부는 지난 8월부터 함께 기도하면서 정성껏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한순간의 잘못으로 인한 상처를 지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한 사랑을 마음에 새겨줄 수 있도록 1:1 멘토링 시간을 마련했다. 청소년들에게 친형과 친누나처럼 다가가 복음을 전하고 인생그래프를 함께 그리고, 편지를 쓰며 마음속 이야기들을 진솔하게 나눴다.

이번 캠프에서 팀장으로 수고한 김태연 성도(청년부)는 "8월부터 기도로 준비한 이번 행사에 팀원들이 모두 한 마음으로 자원했는데, 오히려 저희가 받은 은혜가 더 커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아이들에게 전해주면서 상처 입은 아이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기도했더니, 제가 더 행복해졌습니다. 사회사업위원회 위원들께서 아낌없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라고 말했다.

신동우 장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 충만한 청소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로뎀청소년학교를 4번 방문했는데, 방문할 때마다 학생들이 정말 인사를 잘해 인성이 훌륭하다고 느꼈습니다. 말씀으로 심령이 치유되어 사회에 꼭 필요한 일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학생들을 돌보며 귀한 영혼 구원을 위해 헌신한 광림의 청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라고 밝혔다.

김대복 교장은 "로뎀청소년학교는 상처 입은 영혼들이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기관입니다. 귀한 사랑을 나눠주신 광림교회 사회사업위원회와 청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광림교회 청년들의 멘토링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나눔과 사랑을 마음에 담고 가게 되어 기쁩니다"라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소현수 기자 camancow@naver.com

# 예수님의 공생애 흔적이 담긴 국제광림비전랜드 <부활의 동산>

모세와 십계명

야곱의 꿈

사람을 낚는 어부

호산나 입성

최후의 만찬

십자가의 길

십자가

부활의 동산 팻말

**사망권세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 만나는 곳**

국제광림비전랜드는 2008년 12월 재개관하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청소년, 청년들을 위한 영적 수련의 장으로, 기도의 산실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2010년 조성된 〈부활의 동산〉에는 예수님의 공생애 흔적이 담긴 14개의 아름다운 동상이 설치되어 있다. 2km에 걸친 산책로를 묵상하며 걷노라면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깨닫게 되면서 절로 고개가 숙여지고 기도가 나온다. 제자들을 부르셨던 '사람을 낚는 어부', 호산나 찬송을 부르던 '예루살렘 입성', 우리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을 지나쳐가면, 우리를 위해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빈 무덤', 마지막 장소에는 '주님의 만찬'을 마주하게 된다. 이곳은 성도들이 경건한 마음으로 성만찬을 거행하는 예배 처소로도 쓰이고 있다. 또한, 감리교회의 창시자이자 위대한 설교가요 전도자인 존 웨슬리의 동상과 구약성경을 대표하는 모세가 십계명을 든 동상도 볼 수 있다.

이곳을 찾은 성도들은 14개의 조형물들을 통해 성경과 교회 역사를 마치 한 장의 그림을 이어붙인 파노라마처럼 생생하게 엿볼 수 있다. 지난주에는 더 좋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조형물이 있는 스테이션마다 친환경 소재로 만든 나무 팻말을 새롭게 설치했다. 스테이션의 제목과 관련된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외국인들을 위해 영어로도 표기되어 있다.

국제광림비전랜드 담당 장한경 장로는 "10년 만에 산뜻하고 새롭게 단장한 〈부활의 동산〉을 찾는 성도들이 더 깊이 주님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은혜의 터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제광림비전랜드는 여성가족부에서 선정한 청소년 수련시설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으로 지정되었으며, 해마다 많은 국제대회가 열리고 있다.

문의 : 국제광림비전랜드 031-592-1163

유병권 기자 ybkpower@empas.com

# 한해를 마무리하며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2019 선교구 성가제〉 12월 1일 저녁 7시 본당 대예배실에서 열린다

**2001년 시작하여 올해로 19번째 맞이하는 이번 행사에는 선교구 11개팀, 광림남교회 2팀, 광림서교회, 광림북교회 등 총 15개팀이 나와 그동안 열심히 연습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12월이 되면 대강절과 함께 크리스마스가 찾아온다. 1년 중 마지막 달인 12월 첫째 주일에 광림교회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은혜의 시간을 갖는다.

바로 그 행사인 〈2019년 선교구성가제〉가 일주일 뒤인 12월 1일 주일 저녁 7시 광림교회 본당 대예배실에서 성대하게 열린다. 2001년 시작하여 올해로 19번째 맞이하는 이번 행사에는 선교구 11개팀, 광림남교회 2팀, 광림서교회, 광림북교회 등 총 15개 팀이 나와 그동안 열심히 연습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한 팀당 대부분 100명이 넘는 인원이 참석하는 대회인 만큼 최종적으로 무대에 서기 전까지 여러 차례 연습의 과정도 필요하다. 매주 한 번 교회에 나와 연습하는 선교구도 있지만, 교회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평일에도 인근 지역에 모여 찬양 연습을 하는 하는 곳도 많다. 다소 번거러울 수 있지만 대부분 성도들은 하나님께 더 아름다운 찬양을 하기 위해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아깝지 않다고 말한다.

지난해 성가제에서 대상을 수상한 9선교구의 서 헌 권사는 "단상에 나와 합창을 하기까지 여러 번 만나 연습하기도 하지만, 그러한 가운데 교구와 선교구 전체 식구들을 가깝게 만날 수 있어 좋습니다. 어린 아이부터 원로장로님에 이르기까지 평소에는 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지만, 모두 반갑고, 다함께 찬양을 하면서 은혜가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등수가 나오는 만큼 좋은 성적을 내면 좋겠지만, 결과 못지않게 그 과정도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오랜 기간 성가제가 지속되다보니 한동안은 순위에 집착하여 과열경쟁을 보인 적도 있지만, 근래 들어서는 경연대회 형식을 성가제로 바꾸고 경쟁보다는 성도들간의 화합과 친목의 교제에 초점을 두고 있다.

목회행정기획실 정존수 목사는 "기독교는 찬양이 강조되는 종교이고, 특히 광림교회 교인들은 찬양을 좋아하면서 그 수준도 높은 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사회는 전반적으로 분열과 갈등의 문제 등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러한 때 찬양을 통해 선교구 식구가 하나 되어 조화를 이룬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성가제를 통해 교구와 선교구가 다시 한 번 단합되고 나아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 2019 선교구 성가제 곡명]

1선교구 〈깨진 옥합〉
2선교구 〈사랑의 왕〉
3선교구 〈빛과 소금되어〉
4선교구 〈저 천국은 나의 집〉
5선교구 〈이 믿음 더욱 굳세라〉
6선교구 〈성령이여 오소서〉
7선교구 〈날 사랑하심〉
8선교구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9선교구 〈기뻐하며 찬양하세〉
10선교구 〈주는 여호와〉
11선교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남1선교구 〈시편 20편〉
남2선교구 〈마른 뼈〉
광림서교회 〈우리〉
광림북교회 〈감사송〉

이득섭 기자 7sublee@naver.com

# 크리스마스의 기쁨을 나누는 〈2019 광림 스데반 가족 송년 페스티발〉

12월 14일(토) 오후 4시 30분 광림사회봉사관 4층 컨벤션 B홀에서

**"이 행사는 해마다 많은 남선교회 회원들과 가족들이 모여 스데반 회원으로 봉사하며 선교하는 기쁨을 나누고 서로가 주님 안에서 한 형제이자 교회의 지체임을 깨닫는 시간"**

〈2019 광림 스데반 가족 송년 페스티벌〉이 12월 14일(토) 오후 4시 30분부터 광림사회봉사관 4층 컨벤션B홀에서 열린다. 올해로 네 번째를 맞이한 이 행사는 해마다 많은 남선교회 회원들과 가족들이 모여 스데반 회원으로 봉사하며 선교하는 기쁨을 나누고, 서로가 주님 안에서 한 형제이자 교회의 지체임을 깨닫는 시간이었다. 이번 광림 스데반 가족 송년 페스티벌 역시 지난 행사들과 비교하여 부족함 없이 준비된 귀한 자리로 마련된다.

먼저 1부 순서에서는 온 가족이 함께 퀴즈도 풀고 푸짐한 상품도 받는 '가족오락관'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열띤 응원과 홍미로운 대결로 웃음이 끊이지 않는 유쾌한 시간이다. 2부 순서에서는 맛있는 저녁식사가 준비된다. 올해도 '미스터피자' 뷔페와 '도우쇼'로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모두 즐거운 자리가 될 것이다. 3부 순서에서는 그룹 '부활'의 싱어인 '정 단'과 '이한진 재즈밴드'의 감미로운 공연과 모두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 김정석 담임목사와의 '토크콘서트'가 있을 예정이다. 김정석 담임목사와의 시간은 진솔한 대화 가운데 광림의 비전을 공유하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것이다.

이외에도 특별 이벤트로, 도자기인형에 예수님 캐릭터 그리기, 크리스마스 기념 가족사진 촬영, 선물 주는 산타 할아버지(선착순 50가정 한정) 코너가 마련된다.

스데반 가족 페스티벌의 하이라이트는 행사 말미에 준비한 경품추첨 시간이다. 올해도 남선교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의 워너비 선물들을 한가득 마련했다. LG 스타일러, LG GRAM 노트북, 삼성 무풍큐브, 외식 상품권 등 푸짐한 상품으로 행사에 참석한 회원들에게 기쁨을 두 배로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정성과 노력으로 다채롭게 채워진 스데반 가족 송년 페스티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라며, 모든 스데반 회원들이 가족과 함께 참석하기를 바란다.

문의 : 광림교회 남선교회 02-2056-5704

박기연 장로(남선교회총연합회장)

편집인 김대영 | 위원장 박영준 | 간사·편집디자인 이화목 | 후원 남선교회총연합회 실업인선교회
기자 | 김옥이 김재현 김혜경 박신애 백명순 변영혜 소현수 안미영 유병권 이득섭 이상희 이선아 이정순 | 편집 문화홍보실 | 인쇄 현대원색문화사
www.klmc.net에서 e-book 또는 https://www.facebook.com/kwanglimchurch으로 광림뉴스레터를 볼 수 있습니다